

2025 새해 이렇게 김성 장흥군수

“세계로 비상하는 ‘노벨 문학도시 장흥’ 초석 다지겠다”



500억원 규모 개발 천관산 허그벨트에 노벨문학공원 조성 문학 콘텐츠·옛 장흥교도소·안중근 사당 해동사 개발 박차

“민선 8기 지난 3년 변화와 혁신을 바탕으로 ‘노벨문학도시 장흥’ 그 이상의 목표로 3만 5000 군민의 삶이 성장하는 장흥의 대도약을 이뤄 나가겠습니다.”

김성 장흥군수는 14일 광주일보와 가진 새해 인터뷰에서 “장흥군이 ‘한강작가’의 발원지로 대한민국을 넘어 세계를 향해 비상할 수 있는 K-문학 분향이라는 대명제를 전 세계에 천명한 뜻깊은 해였다”라며 이 같이 말했다.

김 군수는 취임 4년째를 맞은 올해 “사랑과 자비를 실천했던 ‘마더 테레사’의 글을 나누며 올 사년 역점 사업을 실천해 나가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그는 올해 군정 주요 목표를 ▲노벨 문학도시 장흥, 새로운 출발 ▲지방소멸 위기극복을 위한 생활인구 유지 ▲남부권 관광활성화 중심 ‘천관산 허그벨트사업’ ▲호국순례 성지 ‘국립 장흥호

국원’ 본격 추진 ▲맞춤형 복지실현으로 지역간, 세대간 격차 해소 ▲농·수·축·임산업 집진화와 단지화 조성 등을 제시했다.

지난 한해 천관산 허그벨트사업 조성, 호남권역 산림바이오 가공지원 단지 등 총 73건에 2303억원의 국·도비를 확보했다고 자평했다.

우선 장흥에 뿌리를 둔 한강 작가의 대한민국 최초 노벨문학상 수상을 계기로 ‘부녀문학 산책로’를 확대 조성하고 한승원, 송기숙, 이승우 등 장흥을 대표하는 문인들의 생가를 매일 문학관 광기행특구의 명성을 확고히 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이와 함께 글이 흐르는 숲 ‘천관문학공원’의 다양한 문학 콘텐츠 개발, 국내 유일한 실물교도소인 옛 장흥교도소와 안중근 의사 사당인 해동사 개발에도 박차를 가하겠다고 말했다.

지방소멸이 점차 현실화하는 마당에 출생기본

수당 지급을 대폭 인상하고, 일자리 연계형 공공주택 사업과 모듈러주택 신규사업과 전입 세대 희망주거비 및 주택수리비 지원을 통해 생활인구와 정주인구를 유입하는 차별화 정책을 펼쳐나갈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어 지난해 8월 전남도와 1대1 업무협약을 맺은 총사업비 500억원 규모의 천관산 허그벨트 사업을 호남권 5대 명산인 천관산 자락에 세계 노벨문학공원을 조성 문학인들의 순례지로 꾸며 나간다는 계획이라고 밝혔다.

총 전액 국비사업비 497억원이 투자되는 봉안 시설이 2만기 규모로 조성되는 ‘장흥호국원’은 올해가 시작의 해로 실시체계 용역과 인허가 등 절차를 마무리하고 2029년 준공에 차질이 없도록 전 행정력을 쏟겠다는 의지도 내비쳤다.

김 군수는 “군민 모두가 누려야 할 가장 기본적인 권리라는 점에서 출생부터 노년까지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를 위해 노인복지관 활성화·노인 요양시설의 기능보강 사업, 노인 일자리 확대를 통해 어르신 행복 감성을 높여 나갈 생각”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혁신적 농업정책을 통한 농업 경쟁력 강화에도 주력할 생각이다.

읍면별, 권역별로 전략작물을 집단지화·단지화해 농업의 규모화를 유도하고 스마트 청년 농·어업인 육성, 융복합 첨단단지 조성, 지역 특화 임대형 스마트팜 육성 등 지속 가능한 6차 산업화의 농업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신규류 바이오헬스소재 플랜트 조성, K-천연물 산업 육성, 천연물 소재 전주기 표준화 기반 구축 등 출연기관과 연계한 그린바이오 성장 산업을 발굴하고 장흥 표고버섯 신품종 육성 등 유통 기반 확충, 장흥 유일 무산김 국제인증 면적 확대로 지역 농수산 특산품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지원도 강화한다.

끝으로 김성 장흥군수는 “올해는 공직문화를 변화시켜 지역 발전과 연계할 혁신적인 전략을 마련하고 그것을 실현해 나갈 수 있는 결이 다른 노력을 펼칠 것”이라며 “조직 혁신을 통한 소통과 청렴 행정 추진으로 군민의 행정 신뢰와 공감을 끌어내겠다”라고 강조했다.

/장흥=김용기 기자·중부취재본부장 kykim@

담양군 지난해 고향사랑기부금 23억원 모금...전남 1위

기부 건수 전년비 38% 늘어
‘병원 동행’ 등 기금사업 확대

담양군이 지난해 23억200만원의 고향사랑기부금을 모금해 전남에서 1위를 차지했다.

전국 군 단위에서도 가장 많은 모금액이다.

담양군에 따르면 지난해 고향사랑기부금은 1만 6천832건으로 총 23억200만원이 모금됐다.

시행 첫해인 2023년도와 비교하면 기부 건수는 38.6%, 기부 금액은 2.7% 늘었다.

세액 공제 대상이 되는 10만원 이하 기부가 전체의 94.5%를 차지했다.

기부자의 58.3%는 광주와 전남권 관계 인구로

파악됐다.

시행 첫 해 담양군에 기부한 사람 중 31%가 2년 연속 재기부한 것으로 조사됐다.

담양군은 시행 첫 해 모금된 기부금 22억4천만원 중 2억6000만원을 투입해 기금사업을 하고 있다.

거동이 불편해 대중교통이 어려워 병원 치료를 받지 못하는 노인을 위한 ‘병원 동행 및 퇴원 환자 통합돌봄’과 지역 아동센터 어린이들에게 악기 교육 기회를 제공하는 사업, 소상공인을 위한 지원 사업 등이다.

올해는 사업비와 사업 규모를 확대해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노인 병원 동행 사업은 광주 권역까지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청소년 독서 동아리 지원 사업’과 ‘향

촌 공동급식센터 운영’ 등 신규 사업을 추진한다.

지난해 11월부터는 지정 기부 사업을 선정보 모금을 시작했다.

담양향우회관 건립 지원과 노인 문화복지 프로그램 지원, 향촌노인종합복지관 재할 돌봄, 유기 동물 입양프로젝트 등 기부자가 원하는 곳에 기부금을 투입한다.

지난해 말까지 두 달간 ‘유기 동물 입양 프로젝트 지원’ 사업에 5600여만원(589건)이 모금돼 지정 기부 사업 중 가장 큰 호응을 얻었다.

이병노 담양군수는 “전국의 기부자 덕분에 담양 고향사랑기부제가 성공적으로 정착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기부자 예우 정책 등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담양=한동훈 기자 hdh@



마을회관 옥상에 차광 페인트를 도색하는 시원지붕 시공 작업을 하고 있는 모습.

장성군, ‘기후 위기 취약’ 경로당 안전망 구축

공모 선정...차광 페인트 도로

장성군이 급격한 기후 변화 대응에 취약한 어르신들을 위해 안전망을 구축한다.

장성군은 환경부가 주관한 ‘기후 위기 취약계층·지역지원 공모사업’에 선정돼 총사업비 10억600만원을 들여 연말까지 사업을 추진한다고 14일 밝혔다.

이 사업은 기후변화 대처가 어려운 취약계층과 지역을 대상으로 사회 안전망을 구축하는 것이 핵심이다.

장성군은 어르신들이 이용하는 공공시설 지원 부분 사업에 선정돼 지역 경로당 40곳과 보훈회관

에 차광·차열 기능이 뛰어난 특수페인트 도장 공사를 추진한다.

옥상, 지붕, 외벽 등에 차광·차열 특수페인트를 칠하면 적절한 실내 온도 유지를 통해 냉·난방비 절감과 함께 탄소중립 실현에도 도움이 된다.

결빙취약지역 2곳에는 열선도 설치한다. 골목길, 경사로 포장도로에 열선을 설치해 어린이, 어르신 등 주민들의 겨울철 낙상사고를 예방할 계획이다.

김한중 장성군수는 “사업이 완료되면 주민들의 건강하고 안전한 일상생활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기후 위기 대응 공모사업 선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장성=김용호 기자 yongho@

나주 ‘금빛상점가’ 중기부 활성화 사업 선정

결제 시스템·휴게실 설치 등 추진

나주시 원도심 중심가에 조성돼 있지만 급격한 유통 환경 변화로 침체의 길로 접어든 ‘금빛상점가’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게 됐다.

나주시는 중소벤처기업부가 주관한 2025년 전통시장·상점가 활성화 지원사업 공모에 ‘나주 금빛상점가’가 최종 선정됐다고 14일 밝혔다.

금빛상점가는 발전 가능성이 높은 시장을 선별해 특성화 시장 육성 기반을 지원하는 ‘첫걸음 기반 조성사업’ 부문에 선정됐다.

나주시는 공모 선정으로 사업비 1억4000만원(국비 50%)을 투입해 금빛상점가 활성화를 추진한다.

주요 사업은 ‘편리한 지불·결제 시스템 지원’ ‘구매액 일부 페이백’ ‘개방휴게실·화장실 설치

‘상인조직 역량 강화’ ‘핫플 존(zone) 조성’ ‘공영주차장 고객 편의 시스템 구축’ 등이다.

금빛상점가는 이번 사업 추진 실적을 지렛대 삼아 2년간 최대 10억원을 지원하는 ‘문화관광형시장 육성사업’에 도전할 계획이다.

윤병태 나주시장은 “유통 인구 감소와 소비 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상점가를 살리기 위한 상인회의 적극적인 의지와 참여가 결실을 맺었다”며 “더 쾌적하고 편리한 상권 기반 조성을 통해 상점가에 활력이 넘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나주=김민수 기자 kms@kwangju.co.kr

wilo

대한민국 판매 1위 펌프 윌로펌프

강력한 성능! 합리적 가격!
농사용 펌프도 역시 윌로펌프

전국 132개 서비스망